

“3경기차 좁혀라”...준PO 가는 길, 최대 승부처

KIA, 23일 원정 두산전...26-27일 홈 LG2연전

쌍둥이 두번 잡으면 1경기차...밀리면 3위 추격 동력 ‘흔들’
‘나홀 휴식’ 마운드 운용 총력전...‘모 아니면 도’ 빚고을 빅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위를 향한 승부에 나선다.

이번 주 상대가 절묘하다. 5위 두산과 3위 LG를 차례로 만난다.

21일 현재 KIA는 71승 57패 2무로 4위다. 승률은 0.555다. 5위 두산에는 5.5경기 앞섰다. 3위 LG와는 3경기 차다.

분위기도 좋다. 지난주 3승 1패를 거뒀다. SSG 원정에서 패했지만 이후 기운을 잡았다.

19일엔 지긋지긋했던 NC전 8연패를 창원에서 끊었다.

20일 NC전에서는 박정우가 해결사로 나섰다. 8회 2사 만루에서 역전 3타점 3루타를 터뜨렸다. 이의리는 9회 위기를 막았다.

3연승이다. 순위 싸움에도 불이 붙었다.

이제 시선은 위로 향한다.

KIA는 먼저 23일 잠실에서 두산을 만난다.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다. 두산에는 7승 8패로 뒤져 있다. 마지막 경기를 잡으면 8승 8패로 균형을 맞춘다.

단순한 한 경기기가 아니다. 현재 순위가 굳어지면 두 팀은 포스트시즌 첫판에서 다시 만난다. 정규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가을야구 전초전이 될 수 있다.

KIA 타선은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고전했다. 팀 타율 0.243, 득점권 타율 0.214에 그쳤다.

마운드는 버텼다. 팀 평균자책점은 3.88이다.

두산을 넘으면 LG가 기다린다.

KIA는 26-27일 광주에서 LG와 주말 2연전을 치른다. 이번 주 최대 승부처다. 현재 두 팀의 격



이의리

차는 3경기다.

KIA가 2연전을 모두 잡으면 1경기 차로 따라 붙는다. 1승 1패면 그대로다. 모두 내주면 5경기 차로 벌어진다.

LG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7연승을 달리고 있다. KIA도 상대 전적에서 4승 7패로 밀린다.

두 팀이 만나는 것은 3개월 만이다. KIA는 지난 6월 광주 3연전에서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이번에도 방망이가 관건이다.

KIA의 LG전 팀 타율은 0.261이다. 9개 상대 구



한준수

단 가운데 8위다. 득점권 타율도 0.239에 그쳤다.

반면 마운드는 탄탄했다. 팀 평균자책점은 4.21로 리그 2위다. 볼펜은 3.55로 더 좋다.

고우석도 넘어야 한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9월 6경기에서 1실점만 허용했다. 삼진은 10개를 잡았다.

일정에는 여유가 있다.

이번 주 경기는 단 3차례다. 휴식일은 나홀이다. 20일 NC전을 마친 뒤 이틀을 쉰다. 23일 두산전을 치르고 또 이틀을 쉰다.



카스트로

〈KIA 타이거즈 제공〉

선발진도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 볼펜도 총력전이 가능하다.

전력 공백은 아직 있다.

김도영과 박재현, 성영탁은 빨라야 28일 돌아온다. 이번 주까지는 이들 없이 싸워야 한다.

지난주에는 공백을 잘 매웠다. 박정우를 비롯한 기존 선수들이 힘을 냈다.

이번에도 버텨야 한다. 매 경기 무게가 가볍지 않다. 아래를 막고 위를 쫓아야 하는 일주일이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20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T	78	47	4	0.624	0
2	삼성	76	52	3	0.594	3.5
3	LG	75	55	1	0.577	5.5
4	KIA	71	57	2	0.555	8.5
5	두산	65	62	5	0.512	14
6	NC	59	67	2	0.468	19.5
7	SSG	58	69	5	0.457	21
8	롯데	56	71	2	0.441	23
9	한화	54	72	4	0.429	24.5
10	키움	45	85	4	0.346	35.5

KIA, 1라운드 경남고 내야수 이호민 ‘낙점’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미래를 이끌 ‘아기 호랑이’들을 뽑았다. 첫 선택은 경남고 내야수 이호민이었다.

KIA는 21일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1명의 신인을 지명했다.

키움과 두산에 이어 KIA가 세 번째로 지명

권을 행사한 KIA는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모두 선수를 뽑았다.

1라운드에서 전체 1순위 부산고 하현승이 키움, 2순위 서울고 김지우가 두산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심재학 KIA 단장이 이호민을 호명했다.

2라운드에서는 마운드를 보강했다.

전체 13순위로 부산과학기술대 투수 광병진을 지명했다. 3라운드에서는 전체 23순위로 마산용마고 내야수 노민혁을 뽑았다.

4라운드에서는 동원과학기술대 투수 이종걸을 선택했다.

지역 연고 선수도 KIA 유니폼을 입는다.

5라운드 전체 43순위로 광주제일고 포수 김선빈을 지명했다. KIA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처음 뽑은 포수다.

6라운드부터 다시 투수를 잇따라 선택했다.

광주고 김영준을 전체 53순위, 배명고 이세민을 전체 63순위로 뽑았다.

8라운드에서는 유신고 내야수 소재휘를 지명했다. 전체 73순위다.

9-10라운드에서는 다시 마운드를 채웠다. 인상고 투수 지민혁을 전체 83순위로 뽑은 데 이



1라운드에서 KIA의 선택을 받은 이호민 〈KIA 타이거즈 제공〉

장 많다. 내야수 3명과 포수 2명이 뒤를 이었다. 외야수는 뽑지 않았다.

고교 선수는 9명이다. 대학 선수는 부산과학기술대 광병진과 동원과학기술대 이종걸 2명이다.

광주 지역 고교 출신은 2명이다. 광주제일고 포수 김선빈과 광주동성고 투수 이진관이 KIA의 선택을 받았다.

어 광주동성고 투수 이진관을 전체 93순위로 지명했다.

마지막 선택은 포수였다.

KIA는 11라운드 전체 103순위로 화고고 유제민을 뽑으며 드래프트를 마쳤다.

11명의 포지션을 보면 투수가 6명으로 가



장성하이텍고 임서준·임서우 ‘金 합작’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 목포해양대 안승태·오준교 ‘2관왕’

장성하이텍고 조정부 ‘쌍둥이 형제’ 임서준·임서우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에서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다.

임서준·임서우 조는 지난 21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고등부 무타페어에서 7분36초8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동생 임서우는 경량급 싱글스킬에서도 8분9초2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형’ 임서준은 싱글스킬에서 8분11초63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하는 선전을 펼쳤다.

여고부에서는 문향고 윤담인이 싱글스킬에서 8분38초19로 3위를 기록했다. 중등부에서는 장성중 강두영과 김민겸·김주호 조가 싱글스킬과 더블스킬에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목포해양대 활약도 돋보였다.

안승태·오준교 조는 남파대학부 더블스킬에서 7분12초93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 조정부·김찬조는 7분33초04로 3위에 올랐다.

쿼드리플에 출전한 박지성·오준교·안승태·김찬은 6분36초2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안승태·오준교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지성은 싱글스킬에서 2위를 기록하며 목포해양대 선전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일 경기장을 찾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체육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전남 조정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

뒀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고등부부터 대학부와 일반부까지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하고 있는 만큼, 우수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전남 조정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계육성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체육회·스포츠클럽, ‘함께 또 같이’ 내일을 열다

2026 스포츠클럽 소통 간담회

전갑수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올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7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 10개 지정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직원, 지도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스포츠클럽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일선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토론 및 유대 강화 세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스포츠클럽 마케팅을 위한 AI(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도 진행됐다.

광주지역 스포츠클럽은 올 상반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국비 확보 등에서 성과를 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역 내 10개 지정·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연간 2천400명 이상의 시민이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총 12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활용한다.

생활체육이 전문체육으로 연계되는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한 학생들이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 광주 대표 선수로 선발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거점스포츠클럽 흥성삼 사무국장 및

고을스포츠클럽 고혜영 사무국장은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시민들이 일상 공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핵심 비전”이라며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전문체육의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스포츠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 사의

최수용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 전환

프로축구 광주FC가 최수용(사진) 광주시축구협회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구단 운영을 이어간다.

광주는 지난 18일 “노동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임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최수용 광주시축구협회장이 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대행 체제는 구단 정관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구단 당연직 이사 가운데 연장자인 최수용 직무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최 직무대행은 광주시축구협회장 자격으로서 구단 당연직 이사로서 재임 중이다.



최 직무대행은 향후 선임 대표이사가 선임 될 때까지 구단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와 주요 대외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이어가

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광주는 현재 공석인 경영본부장에 대한 공개채용도 진행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